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53

새 왕을 만나러간 사무엘

(사무엘상 14:47~16:13)

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다른 민족과
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어요.
모압, 암몬, 에돔, 소바, 블레셋...

사울 왕은 가는 곳마다 적들을 물리쳐 이겼고
강하고 용감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자기의 군사로 삼았죠.

하지만,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사울 왕의 마음에는
어느 순간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답니다.
어느 날, '아말렉'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
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왔어요.

**“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왕께
전해드리러 왔습니다.
아말렉 족속은 그 옛날 우리 이스라엘이
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우리를 가로막고
괴롭혔던 족속입니다.
해서,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
없애버리고 그곳에서 취한 어떠한 물건도
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. 명심하세요.”**

**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사울 왕은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.
그런데 막상 이기고 나자 사울 왕은 승리의 기념으로
무언가를 가지고 돌아가고 싶어졌어요.**

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대신
아말렉의 왕과 아말렉의 가장 좋은 가축들을 데리고
이스라엘로 돌아왔죠.

다음 날, 아침 일찍이부터 사무엘이
사울 왕을 찾아왔어요.

“아이고, 어서 오십시오 선지자님.
제가요, 이 사울이 말입니다.
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의
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왔습니다. 하하하.”

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통해
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.

“그래요? 왕게서 하나님의 말씀에
순종했다면, 지금 내 귀에 들리는
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대체 무엇입니까?”

정말이었어요.
아말렉에서 가져온 가축들의 울음소리가
분명히 들리고 있었죠.

**“아이고 선지자님
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.
저녀석들은, 저희가 하나님께 제물로
바치기 위해서
아주 좋은 녀석들로만 특별히 챙겨온 겁니다.
하나님을 위한 거라고요.”**

그러자 사무엘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.

**“사울 왕이여. 대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.
옛날, 스스로 왕이 되기를 부끄러워하고
겸손해하던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.
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어주셨는데
왜 그 분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.
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
제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!”**

화난 사무엘은 그래도 돌아가려 했어요.

**그러자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았는데
그만 옷자락이 찢어지고 말았죠.**

그러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.

**“방금 왕께서 제 옷을 찢은 것처럼
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찢으셔서
왕으로부터 배앓으셨습니다.
그리고 이스라엘을 왕보다 더 훌륭한 사람에게
주시기로 하셨습니다.”**

그날 이후, 사무엘은 사울 왕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았어요.
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을
실망시켰다는 사실에 한동안 계속 슬퍼했죠.
그러자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.

**“사무엘아.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
마음 아파할 것이냐?
이제 내가 새로 왕이 될 사람을 알려줄 테니
너는 기름을 준비해서 내가 선택한 자에게 부어 주거라.”**

**“그런데요, 하나님. 제가 다른 사람에게
기름 부은 사실이 알려진다면
사울 왕이 저를 죽이려 할지도 모르는데요...”**

**”그런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.
지금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거라.
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제사를 드리되
‘이새’라는 자의 아들들을 꼭 부르거라.
그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단다.”**

**그제야 사무엘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
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.**

**뿔처럼 생긴 그릇에 올리브기름을 담아서 가지고 갔죠.
베들레헴 사람들은 사무엘을 반겨주었고
이새와 이새의 아들들도 제사에 참석했어요.**

**‘아들이 총 일곱 명이구만.
오호. 그 중에서 저 친구가 단연 돋보이는군.
키도 크고 아주 잘 생겼어.
하나님께서 고르신 자가, 저 자가 틀림이 없구만.’**

사무엘이 속으로 아들 중 한 명을 눈여겨보고 있을때
마침 이새가 그 아들을 소개해주었어요.

**“선지자님, 이 아이가
제 첫째 아들 ‘엘리압’입니다.”**

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
말씀하셨어요.

**“사무엘아, 그 아이가 아니다.
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거라.
나는, 사람의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다.”**

그렇게 첫째 엘리압은 지나가고.
둘째 아들 ‘아비나답’, 셋째 아들 ‘삼마’
그리고 일곱 번째 아들까지
사무엘 앞에 나와 인사를 했어요.
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중 아무에게도
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죠.

사무엘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새에게 말했어요.

“정말 이상하구만 여기 있는 일곱 아들이
전부가 맞습니까?”

“아, 아니요! 제게는 아들이 여덟 명 있습니다.
지금 막내 녀석은 밖에서 양을 돌보느라
오지 못했습니다. 헤헤.”

옳거니! 사무엘은 곧장 그 막내아들을 불러 오게 했어요.
그 때까지 식사도 하지 않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
막내아들을 기다렸죠.

그리고 몇 시간 후

“나으리, 막내 도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~”

“헉헉... 아이 숨차.
아버지, 저를 부르셨어요?”

“오냐, 여기 선지자님께 인사드리거라.
선지자님, 이 아이가 제 막내아들 다윗입니다.”

다윗은 한 눈에 봐도 정말 총명해보이는 소년이었어요.
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.
그리고 그 때,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.

**“바로 이 소년이다. 어서 일어나
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거라.”**

그렇게 사무엘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
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.
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왕 문제 때문에
슬퍼하지 않아도 됐죠.
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을
만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.